

## 총 들고 시험 감독한 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총을 어깨에 멘 채 시험을 감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당시 시험을 치르던 한 학생에 의해 촬영

영패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주에 있는 마부사베살라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교실의 시험감독을 맡은 교사가 오른쪽 어깨에 소총 한 자루를 멘 채 교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감시했다. 5초 분량의 이 영상은 당시 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던 한 학생이 몰래 촬영했다.

26세라는 나이만 알려진 이 교사는 평소에도 총을 소지한 채 학생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다른 교사들은 물론 교장도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아공 교육부는 7일 해당 교사를 징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이미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학교 측에도 이 교사에 대해 경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 이 학교를 교육부가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사건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교사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직이라는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는 사소한 일이라도 계속 보고하도록 교사들과 관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취업률 과장됐다”며 모교 상대 소송한 졸업생

취업 전망을 부풀려 학위 장사를 했으며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졸업생이 최근 6만1,000파운드(약 7만7,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홍콩 출신인 포 윈(30·사진)은 2013년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대학교이 대학에서 해외 유학생 대상 학위 과정을 통해 국제경영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유능한 교수진과 졸업 후 취업 보장을 자신한 학교를 믿고 오른 유학길은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녀는 지난해 BBC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늦기 일쑤였고 심지어 자율학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질 낮은 수업에 대해 수차례 학교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포 윈은 “학교는 우리를 학생이 아닌 돈벌이 수단쯤으로 여겼다.”며 분노했다.

그녀는 졸업식 당일까지 항의를 이어갔지만 학교 측에 감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포 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포 윈이 졸업식을 방해하려 해 무대에서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 주었으며 포 윈에게 소송 비용 1만 3,700파운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포 윈은 포기하지 않았다. 졸업 후 취업 역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 윈은 “아무리 1회 졸업생이라지만 취업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학교의 실명과 매우 달랐다. 내 학위는 ‘미키마우스 학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 ‘미키마우스 학위’는 노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위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학위가 종잇조각과 같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포 윈은 모교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학교가 인지도와 취업 전망을 부풀려 유학생을 상대로 학위 장사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포 윈은 “마치 졸업만 하면 취업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유학생들을 속였으며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고 그저 학위증을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유학생들 역시 학교의 질 낮은 수업에 불만을 표했다.

결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는 포 윈에게 1만5,000파운드의 합의금과 4만6,000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 ‘아보카도’로 협박해 돈 뜯은 은행 강도

이스라엘의 한 강도가 아보카도를 수류탄으로 위장해 은행을 터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47세의 이 남성은 베르세바의 은행 두 곳에서 8,300달러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베르세바의 한 쇼핑몰 인근에 위치한 은행에 침입해 현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넸다. 그러나 창구 직원이 머뭇거리자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그가 손에 들고 있었



던 것은 진짜 수류탄이 아닌 겉게 칠한 아보카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가방을 들고 사라진 강도는 닷새 뒤 같은 수범으로 다른 은행을 털었다.

CCTV에는 그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찍혔으나 얼굴을 모두 가리는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탓에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용의자를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도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